

1933년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

윤선자(전남대 사학과)

1. 머리말

일제강점하 조선에서 전개된 공산주의운동¹⁾은 일제식민통치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민족독립운동임과 동시에 계급타파운동이었다. 봉건신분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일제의 식민통치로 자본주의 발달이 왜곡되면서 생성된 경제적인 차별은 봉건사회의 신분차별만큼 심각하였고, 공산주의운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구조의 왜곡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연유하는 바가 가장 컸으므로 일제 식민통치를 반대한 공산주의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이었다. 동학농민전쟁 이후 한민족의 과제는 반제 반봉건이었고, 시기에 따라 여건에 따라 비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반제와 반봉건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일제하 공산주의운동은 식민통치하라는 시대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급타파운동에만 머물 수 없었고,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추진하였던 이들도 민족운동의 목표 아래 계급타파운동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공산주의운동을 그들의 식민통치에 방해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극심하게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4차에 걸친 조선공산당사건을 일으켜 공산당운동의 중요한 인물들 대부분을 검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코민테른은 1928년 12월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12월테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혁명적 노동자·농민이 그들의 권위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²⁾ 193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일반적인 활동지침이자 당재건 테제가 되었다.³⁾ ‘지식분자들만의 당으로부터 농민·노동자·도시 소부르주아지 대중에 기초를 둔 권위당으로’라는 조공재건운동은 1929년에 시작되었는데, 1931년 초부터 이전까지 추진하였던 당과 공산청년회 조직을 해산하고, 적색농민조합·적색노동조합의 조직 확대 강화로 방침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많은 논문들이 혁명적 농민조합과 농민운동, 혁명적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추적하고⁴⁾ 공산당재건에 관심을 기울였다.⁵⁾

1932년 4월 전북경찰부를 거쳐 1933년 12월 4일 공판에 회부된 일명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은 1934년 3월 19일 전주지법에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다. 200여 명을 검거하여 42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1934년 3월 31일 판결을 언

1) 원론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범주는 다르다. 서구의 사회주의이론에서는 양자를 소유방식의 차이로 구별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의 분량에 비례한 소유’를 지향하고, 공산주의사회는 ‘필요에 의한 소유’가 가능한 사회로 보았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구별은 별다른 차별성을 지니지 못했다. (류시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역사비평』 2006년 봄호, 2006.2, p.3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않았다. 다만 ‘공산주의’ 용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일제식민통치자들의 문서 내지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하였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주의보다는 공산주의 내지 공산당 용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 지수걸, 『일제하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p.130.

3) 신주백,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선인, 2004, p.121.

4) 1930년대 농민운동 및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및 농민조합에 대해서는, 신주백, 「1930년대 함경남도지방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관한 일 연구」, 『성대사림』 5, 1989 ; 신주백, 「1930년대 혁명적 노·농운동의 조직문제에 관한 한 연구 - 범태평양노동조합과 명천군 농민조합운동을 중심으로 -」, 『역사비평』 7, 1989 ; 안대경, 「1930년대 뽕산지역의 혁명적 노동운동(1930~1938) - 조직건설운동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2, 한국역사연구회, 1989 ; 변은진, 「1930년대 경성지역 혁명적 노동조합연구」,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1991 ; 김경일, 「1930년대 전반기 서울 상해파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한국민족운동사 연구의 역사적 과제』, 국학자료원, 2001 ; 박수현, 「1930년대 초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민족운동사상의 성격」, 『한국 항일민족운동과 중국』, 국학자료원, 2001 ; 박이준, 「1930년대 영암지방 적색농민조합운동의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8,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 조성은, 「일제하 영동지방 농민조합운동의 구조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8, 2001.

5)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대해서는, 김준업·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III·V, 고대출판부, 1973 ;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 1, 돌베개, 1986 ;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禾多, 1985 ; 고준석,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공동체, 1989 ; 안대경, 「1930년대 서울지역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1991 ; 한국역사연구회,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 이재화, 『한국근대민족운동사』 II, 백산서당, 1988 ;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 신주백,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선인, 2004 ;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연구」, 『한국사연구』 74, 1991.

또한 이 사건은 1930년대 초반 일제의 사상범 규제는 물론 식민지 조선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는지,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전북과 충남이 공동으로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한 사례로 지역연대가 추진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권용두 및 군시제사대전공장의 노동쟁의를 추적한 연구⁶⁾에서 일부 언급하였다. 그러나 권용두 개인 및 군시제사대전공장의 노동운동에 주력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조망에는 상당한 아쉬움을 준다. 권용두는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권용두를 추적한 선행연구는 권용두가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한계가 보인다. 또한 군시제사대전공장의 노동운동에 충남전위동맹의 참여는 대전지역에서 전개한 공산주의운동의 한 사례인데, 그것이 충남전위동맹의 중요한 목표였던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본고는 1933년 대전과 전북에서 공산주의운동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지역별 공산주의운동이 전개되었던 1930년대 전북지역 및 충남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의 실상 및 대전과 전북, 전북과 대구의 협력과 같은 연대가 이루어졌기에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개괄적인 연구에서 1930년대 공산주의운동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전개된 1930년대 공산주의운동은 지역별 사례연구를 종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구성하는데 기초 자료는 전주지방법원의 1934년 3월 31일자 <김철주 등 판결문>(昭和 8년 刑公 第1905-1910호)과 대구복심법원의 <김철주 등 판결문>(昭和 9년 刑公 第161-164호)이다. 당시의 조선어 신문자료도 참조하였다.

2. 1930년대초 전북의 공산주의운동

전북지역에는 1910년대 후반 지역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수용되었고, 1922년 10월 서울파 ‘공산주의그룹’이 임종환(林宗桓)을 전북지역 책임자로 임명한 이후 1920년대 중반까지 서울파와 연계를 맺었다.⁷⁾ 전북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에서 공산주의운동과 연결되어 거론된 전북지역의 학교는 전주공립보통학교와 전주사립신흥학교, 이리공립농림학교 등이었고, 그 중심단체는 독서회들이었으며, 한종식과 김철주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서회 조직에 주력한 인물은 김규선과 한종식이었는데, 김규선은 전주공립보통학교와 전주사립신흥학교, 한종식은 이리공립농림학교의 학생반 조직에 영향을 끼쳤다.

전주공립보통학교는 1929년 2월 오익선·정재향·최필상이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고, 이 독서회 해산 후 1929년 7월 10일 2학년 소완영·정재향과 최필상이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1929년 9월 2학년 소완영·정택년·조균이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는데 소완영이 병사하자 해산하고 그해 11월 정택년·정재향·조균이 독서회를 조직하였는데 회원수 증가로 독서회를 해산하였다. 1930년 2월 2학년 박병기·윤기환·정택년·조균이 2학년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가 3학년 진급과 함께 2학년 독서회를 해산하였고, 고창동·김규선·박재선·이형재가 3학년 독서회를 조직하였다가 독서회 해산 후 김규선의 권유로 3학년 고창동·김광훈·박복근·박재선·정남현이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회원수가 증가하고 회원들이 학년을 진급함에 김규선의 권유로 독서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3개 반을 조직하고자 1930년 4월 말 김광훈·박금화·박상훈·박재선·유만석·이형국이 독서회 1개 반, 고창동·안병길·정남현·이광호가 1개 반, 정남현·정봉태·이학재 등이 1개 반 등 3개의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안병길 등이 탈퇴하자 김규선의 권유로 3개 반의 독서회를 해산하고 2개 반으로 하기로 결정하여, 박복근·이광호·이학재·고창동이 1개 반을 조직하고, 유만석·박재선·박금화·박상훈·김광훈이 1개 반을 조직하여 2개 반의 독서회가 되었다.

그 후 유만석·이광호·이학재가 탈퇴하고 박금화·박재선이 사망하자 김규선의 권유로 1931년 1월 2개 반의 독서회를 해산하고 고창동·김광훈·박상훈 및 새 가입자 신석효·은성룡이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1개 반을 조직하였다. 이어 그해 5월 20일 김규선의 권유로 고창동·김규선·이경중·최필상이 전교지도부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고, 김규선이 지도책임자, 2학년은 최필상, 3학년은 이경중, 4학년은 고창동, 5학년은 박복근이 조직책임자가 되었다. 역시 5월 3학년 지도부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6) 김형국, 「1930년대 군시제사대전공장 노동상태와 노동쟁의」, 『종산정덕기박사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6 ; 김형국, 「1920년대말~1930년대초 남곡 권용두의 항일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1999

7) 오대복, 「1920년대 ‘全北民衆運動者同盟’ 研究」,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발표문, 2007년 3월 10일.

조직하고, 5월 하순 5학년 지도부인 독서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후 김광훈·박상훈 등 5학년 지도부원이 탈퇴하자 5학년 지도부를 해산하고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학년 조직책임자인 최필상이 6월에 퇴학당하여 3학년 지도부인 독서회를 해산하고, 김현기·서규태·윤종민이 3학년 지도부인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6월 상순 박장엽·서규태·송길상·송희상·유기홍·이경중·이대진이 3학년 지도부의 하부조직인 3학년 A반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고, 7월 이경중·김현기·윤종민·송희상·강대진이 김재형이 사회운동자금 모집을 위해 적색구원회인 결사를 조직하였다. 12월 고창동도 퇴학당하여 박복근이 2학년 책임자가 되어, 황형택·이춘기·김준기·조규완 등과 학년 지도부인 독서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에게 공산주의 연구를 위해 결사학년반(結社學年班) 조직을 권유하였다. 1932년 1월 김○배(지도자)·이춘기·오영문·이문재 등이 1개 반, 조규완(지도자)·김준기·정길량·이재원·김규봉이 1개 반, 이춘기(지도자)·김준기·한정수·김종관이 1개 반인 2학년반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전주공립보통학교에 이어 전주에서 공산주의운동과 연결되어 거명된 학교는 사립신흥학교였고, 김규선과 조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1년 6월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서 퇴학당하여 사립신흥학교에 입학한 조균의 주도로 신흥학교 3학년 조균·김갑복·김인철·유재근이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독서회 해산 후 1931년 12월 김규선의 권유로 신흥학교 3학년 조균·김갑복·김인철·유재근·김영승·조종현·정인성이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어 1932년 1월 김규선의 권유로 조균·김영승·조종현·윤은익·강봉준·김갑복이 신흥학교 독서회를 조직하였고, 2월 27일 역시 김규선의 권유로 조균·김갑복·김인철·유재근·김영승·조종현·정인성·윤은익·강봉준이 독서회를 해산하고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리공립농림학교는 1931년 4월 양기주와 강희석이 독서회 조직을 협의하고 노력하던 중 강희석이 그해 10월 퇴학당하여 무산되었다. 이어 1931년 11월 독서회를 기초로 공산주의연구 독서회를 조직하고 1932년 1월 종순까지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회원들이 회람하였다. 그리고 1932년 1월 김병윤·강희석·조남윤·이진용·윤석창 등이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을 협의하였다.

전북지역 학교의 독서회 활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주의운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운동으로 진전되었다. 1930년 12월 전주공립보통학교를 퇴학당한 양한근·윤기환,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한 양운성이 1931년 전주청년동맹⁸⁾에 가입하였다. 1931년 11월 김자영·김춘배·박병기·양운성·윤기환 등 전주청년동맹원들은 가두청년 혁득과 공산주의사상 주입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김춘배가 지도부책임 겸 재무부위원, 양운성이 교양부위원, 박병기가 조사부위원, 윤기환이 구제부위원, 김자영이 문서부위원 겸 서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전주읍을 남문에서 정거장까지 도로를 경계로 동쪽을 남부, 서쪽을 북부로 하여 남부의 가두청년 혁득책임자를 김자영, 북부의 책임자를 박병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1932년 1월 3일 북부의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선결문제는 공산주의 연구 동지 혁득이라 역설하였으며, 음력 1월 3일 남·북부 가두청년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조기회를 조직하여 공산운동에 관한 협의를 하고, 3월 1일 반전운동을 일으키고 만주 출병에 반대시위를 하자고 권유하였다. 한편 가두청년들에게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교부하여 열독(閱讀)하게 하였다.

농업이 12명으로 28.6%나 되었는데도,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 관련자들의 경력에는 농민조합 내지 농민운동에 관한 내용이 적다. 1928년 전북지역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90.3%로 다른 지역에 비해 3%가 높았다.⁹⁾ 전북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전주-김제-옥구를 잇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교역에 필요한 항구가 있어 일제는 경제수탈을 위해 군산항을 개축, 확대하고 철도·도로 등의 시설을 확충하였다. 이 사건에서 농민조합 조직에 대해서는 옥구가 유일하게 언급되었다. 무직자가 많았고, 1930년대의 상황이 식민지공업화정책으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전북 최초의 농민조직은 1921년 6월 부안에서 결성된 '부안소작인상조회'였고, 적색농민조합은 옥구·정읍·부안의 3곳에만 조직되었는데 초기 조직화단계에서 무너지고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25년 일제고등경찰은 임무단속에 필요한 소작인단체를 포함한 급진단체의 수는 군산 32개, 익산 32개, 정읍 30개, 전주 19개, 고창 14개, 부안 12개, 김제 11개라 하였다.¹⁰⁾ 1930년대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민단체수는 적었다. 1933년 현재 전국의 농민단체수와 농민단체에 가입된 농민의 수는 1,301개, 93,079명이었는데 전북은 9개, 1,54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¹¹⁾ 그럼에도 소작쟁의는 많았고 준조직적 행동을 보였다.

8) 1923년 조직되었다. (『동아일보』 1927.8.13)

9)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8년 :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전라북도지』 제2권, 1969, p.380.

10) 『전라북도지』 제2권, pp.1284-1284.

11) 그 이유는 첫째로 조직할 수 있는 인물들과 연계되지 못한 전북의 지리적 여건, 둘째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 농민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중간층(자작농·자소작농)이 지나치게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전라북도지』 제2권, p.1283) 설득력이

1934년 말 현재 전북의 농가호 5%만이 자작농이고, 영세한 자작겸소작농이 16%로서 이를 합한 21%만이 약간이나마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71%는 소작농이었고 8%는 농업노동자들이었다.¹²⁾ 그런데 이러한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이 마름이었다. 1932년 전라북도내 관리인(마름·農監·指審·조합장·총대·이사·위탁인 등)은 3,388명이었는데 그중 91.6%인 3,116명이 마름이었고, 소작인의 87.9%를 그들이 관리하였다. 마름들의 보수는 주로 지주 부담이었지만, 소작인 부담도 5%나 되었고, 지주와 소작인 쌍방 부담도 23%였다. 마름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소작인들을 위협하고 지주와 계약서에서 약속한 소작료보다 많은 소작료를 징수하여 차액을 착복하기도 하는 지주와 소작농민간의 중간적 기생 착취자들이었다.¹³⁾ 최육득의 권술에 의하면, 농민조합 조직은 사회운동의 일부분 운동으로서 최초의 농민의 이익문제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운동과 합류하여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한 김병운은 1932년 5월 말 옥구 웅본(雄本)농장의 소작인들이 예전부터 소작인들에게 불리한 정조삼양(正條三樣)을 강제당하고 있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을 조직해야 한다고 고규영과 협의하였다. 웅본농장은 옥구군 대야면과 정읍군 태인면에 주사무소를 두고 완주·정읍·부안·옥구·김제·익산 등지에 3,148정보의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¹⁴⁾ 조선농민들을 수탈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활동가들은 조직사업의 비중을 농촌보다는 도시의 공장에 두었으므로 농민조합보다 노동조합 조직건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각 공장에 공장반을 기반으로 공장위원회를 상향식으로 건설하여 대중적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각 분회에 기초를 둔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전망을 갖고 있었다.¹⁵⁾

전북의 노동운동은 철도나 도로공사에 종사하던 토목노동자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정미공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1909년 2월 1일 군산의 370여 명 노동자가 '공동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¹⁶⁾ 192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전북지방의 노동운동, 특히 동맹파업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그것은 토목노동자나 정미공들의 동맹파업이 전북에서 활발한 때문이었다.¹⁷⁾ 이러한 토대 하에서 1930년 1월 '전주합동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¹⁸⁾ 1931년 7월 25일 전주합동노동조합의 상무서기이자 전주청년동맹 서무 및 재정부장인 김문옥과 대구의 서인식·김기선·이응규·이상조 등이 적색노동조합·적색농민조합 조직, 출판물 발행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전주 내지 전북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주와 대구,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협력이 시도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콤뮤니스트>와 <봉화>의 1931년 9월호 각 15부, 10월호와 11월호 각 18부를 반포하였다.

한편 전주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한 최필상은 1931년 12월 군산철도노동회 하차부의 김귀종에게 십장의 중간착취를 타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공산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김귀종은 1932년 1월 노동자 이교태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1931년 1월 전주에서는 자동차운전수 윤희종·신호균·조결성·유종훈·황재규·이기선 등이 공산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교통노동준비회'를 조직하였다. 매월 3회 회합, 공산운동자금 및 서적구입자금으로 월 90전 회비 납부를 결정하고, 윤희종이 공화자동차부(共和自動車運輸),¹⁹⁾ 조결성이 삼남자동차부, 이기선이 육번자동차부 및 조일자동차부(朝日自動車商會),²⁰⁾ 유종훈이 호남트럭, 황재규가 중앙트럭 및 이리군산 방면, 신호균이 환금(丸金)자동차부²¹⁾를 전담하여 회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31년 2월 종준 3·1투쟁준비회를 열고 교통노동대표로 윤희종을 선출하였다. 1930년대 전북에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23년에는 자동차가 74대, 여객자동차업자 13명, 화물자동차업자 1명, 부정기화물자동차업자 17명이었었다.²²⁾

떨어진다.

12) 山田龍雄, 『全羅北道 農業事情』: 『전라북도지』 제1권, p.1014

13) 『전라북도지』 제1권, pp.1024-1025.

14) 『전라북도지』 제1권, p.1002

15) 신주백,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p.228.

16) 『전라북도지』 제2권, 1289.

17)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pp.144-145: 『전라북도지』 제2권, 1291.

18)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p.70.

19) 1934년 12월 설립, 전주군 전주읍 본점 2점목 1번지가 본점.(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5년 판), 東亞經濟時報社)

20) 1928년 설립.(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 판), 東亞經濟時報社)

21) 1933년 1월 설립, 전남 광주가 본점.(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3년 판), 東亞經濟時報社)

22) 『전라북도지』 제2권, p.932.

1931년 3월 부안에서는 강희석의 권유로 백남철·신남근·임장수 등이 공산주의연구 및 노동자 혁명을 위해 '부안노동조합'을 부활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여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어 4월 19일 결사 모임에서 공산주의이론을 연구하고 동지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노동자·농민과의 제휴방침에 기초하여 매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1931년 4월 21일 백남철·박병득·박예동·김옥남은 부안에서 만나 공산주의 연구를 기획하고, 결사를 조직하여 노동조합 조직 및 노동자 혁명에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5월 9일이 결사가 이전의 사회운동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강희석의 설명에 해산하고 공산주의연구와 노동자 혁명에 관한 부안노동조합의 부흥을 기획, 결사를 조직하고 조사연락부 임장수·김옥남, 독서부 박병득·신남근, 경제부 백남철, 조직선전부 박예동·고광성으로 부서책임자를 정하였다. 이어 확보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낮은 것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은 때문이니 자본가가 착취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월 30일 부안군 신안면에서 조직부 한치남, 선전부 김용선, 조사부 윤경서, 연락부 임재홍, 교육부 이석귀로 부서책임자를 정하고 노동자들의 결사를 조직하였는데, 생활 때문에 타지로 떠나고 희망을 버린 이도 있어서 6월 9일 결사를 해산하였다.

1931년 6월 30일 금산청년동맹²³⁾회관에서는 서면대회를 열고 집행위원장 정해철, 집행위원장대리 겸 연락조직부장 송명수, 서무재정부장 김현릉, 소년부장 김상규, 정치문화부장 김부대, 교육부장 조만형, 체육부장 임희준, 검사원장 김성관으로 간부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사적유물론, 사회과학소사전, 사회주의 대의, 가치가격 및 이윤 등의 서적을 열람하였다.

1931년 7월 20일 신흥학교 출신 장재섭은 전주연초전매국 직공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주입할 목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토요일마다 만나 연구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것은 자본가의 착취 때문이고, 착취를 없애려면 공산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이어 1932년 2월 종순 3·1운동 기념일에 공산운동을 펼치고자 3·1투쟁준비회를 열고 연초전매지국 직공대표를 선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개별 학생조직과 노동 및 농민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재건을 준비하기 위한 중앙조직도 결성되었다. 조공재건을 준비하기 위한 각 파의 중앙조직으로는 서울·상해파 중심의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1929.3), ML파 중심의 '조선공산당조직중앙간부'(1929.5), 화요파 중심의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1929.11)이 있었다.²⁴⁾ 1930년 봄 ML파 당재건 조직의 하나인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31년 5월 김창수·김철주·이우성·장재섭·한종식 등이 전주를 중심으로 '조공재건 전주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전주운동은 김철주가 지도하되 전주청년동맹원 중 의식이 농후한 신평부르주아로서 가두청년반을 조직하고, 오르그[조직]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1931년 7월 김철주의 권유로, 전주청년동맹회관에서 김춘배 본정반, 최월상 완산정반, 양운성 남문반, 김자영 대정정반의 가두청년 모집 책임자를 정하였다. 그리고 1931년 8월부터 1932년 2월까지 전주 덕신상회 창고에서 순간(旬間)으로 12-3회, 1회 4부씩 공산주의사상을 고취하는 <가두청년>을 발행, 가두청년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어 1931년 9월 전주운동의 당면문제로 <반전뉴스>를 출판하는데 김철주가 담당하기로 하여, 1931년 12월 10일부터 1932년 2월 10일까지 순간으로 7회, 1회당 100-120부를 인쇄 배포하였다.

한편 1931년 7월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중부위원회가 결성되었다.²⁵⁾ 1931년 11월 전북지방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북을 전주·군산·남원·금산·이리·김제의 6개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지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동체제를 작성하여 본격적으로 운동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운동체제는 김창수가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한종식이 작성하여 익산에서 김창수와 만나 전북지방위원회 조직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1931년 12월 김창수가 경기도 종로경찰서에 검거당하였다. 이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되었다는 이 운동체제는 『사상월보』에 김창수·김철수 등 전북지방의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가 1931년 7월경 작성한 '전북운동체제'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과거의 운동을 비판하고 전북운동의 지도부를 재조직한다는 내용이다.²⁶⁾

2. 과거운동의 비판

①대중투쟁에 독자적 하부조직이 〇〇한 것. 그 결과는 대중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않고, 일상투쟁에서는 이론의 영역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23) 1928년 창립되었다.(『동아일보』1928.2.7)

24)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V, 고대출판부, 1973, pp.284-385.

25) 지수걸, 『일제하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pp.469-470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p.529.

26) 『思想月報』제4권 2호, 1934.5, pp.41-42.

②프로 간부양성을 등한히 한 것 그 결과는 활발분자를 획득하지 않고, 획득한 분자는 투쟁조건을 제기하지 않고, 항상 대중투쟁의 ○○ 영역에 머무를 수 없었다 단 과거 전북운동 비판에 있어서는 활동분자 투옥 관계로 충분한 자료○○ 이상으로 조건만을 지도하였다

3. 전북운동지도부 핵심의 재조직

- ①전북을 6區로 나누고 각 구에 대표자를 두 명씩 두고 그 1인의 대표자로 전북지도위원회를 조직할 것.
- ②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하고, 가장 중요 문제를 토의 결정할 것.
- ③위원회 서기국을 조직하고, 각 부를 직속시킬 것.
- ④위원회는 정치조직부, 이치부로부, 재정부의 각 기관을 설치할 것.
- ⑤정치부는 정치문제에 종사하고 그를 지도결정할 것.
- ⑥조직부는 조직문제에 종사하고 조직, 노력, 할당 지도할 것. 이 부의 결정은 정치부의 양해하에 한하고 ○○할 수 있다.
- ⑦이치부로부는 이치부로부에 종사하고, 조직 군중 및 미조직 군중에게 이치부로한다.
- ⑧재정부는 재정문제에 종사하고 각 부 재정을 공급하고, 이 부 결정은 전향과 같다.
- ⑨각 부는 서기국에 직속하고 서기국 통제하에 있으므로, 각 부 자령, 훈령 등은 서기국의 사인을 요한다.
- ⑩서기국은 각 기관에 자료를 공급할 임무를 지니고, 각 부의 사업보고를 수시로 청취할 것.
- ⑪각 구 위원회는 위원회의 양해하에 당해 지구 위원회를 조직할 것.
- ⑫지구위원회는 위원회에 직속하고, 위원회의 일체 지시하에 활동”

김창수와 김철수가 검거되어 전북운동과 전주운동 모두가 부진상태에 빠지자 한종식이 전북의 공산운동에 주력하였다. 1932년 4월 옥구, 5월 전주, 7월 남원, 9월 전주에서 공산운동을 선전하였고, 검거가 시작되자 대전으로 피신하여 1932년 5월 충남전위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공산운동과 충남지역의 공산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군시제사 대전공장 동맹파업사건으로 충남전위동맹의 전모가 드러나고, 충남전위동맹에 참여한 한종식으로 인하여 전북지역의 공산주의운동 관련 단체 및 관련자도 검거되어 두 지역이 연대한 공산주의운동은 계속되지 못하였다.

3. 충남전위동맹의 활동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에서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대전이었고, 주도적인 인물은 정창세·권응두, 그리고 전북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한종식이었다. 충남의 상황도 전북보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1942년 충남은 총호수의 79.3%가 농업에 종사하여 전남과 충북에 이어 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았다.²⁷⁾ 전국의 세국민수는 1926년 216만여 명으로 인구대비 11.3%였는데 1930년 434만여 명 21.4%로, 1931년 541만여 명 26.7%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였다. 충남의 경우 그 정도가 가장 심하여 인구의 63.4%가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장 구제가 필요한 궁민만 14%에 달하였다.²⁸⁾

이러한 상황에 있던 충남에 1931년 5월 대전전위대가 결성되었다.²⁹⁾ 그리고 1932년 5월 1일 대전군 외남면 인단산(仁丹山) 고산사(高山寺)에서 정창세의 제창으로 강창기·원종응·유의영·이병주 등이 대전전위대를 충남전위동맹으로 변경 결성하였다. 지도책임자 정창세, 교양부 원종응, 조직부 유의영, 재정부 이병주로 부서책임자를 정하고, 소년학생들은 원종응, 인쇄직공은 강창기, 운수노동자는 이병주, 군시제사공장직공은 유의영이 동맹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월 1일과 14일에 집회를 갖고 정치보고와 개인보고를 하며, 회비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1932년 5월 21일 충남전위동맹의 최초 산하단체로 적화(적색)³⁰⁾소년동맹이 조직되었는데 책임자 원종응, 교양부 권응두, 재정부 김지성으로 부서를 정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전·후배 사이였다. 또한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일요일에 회합, 동지 확보, 무산자의 이익옹호를 위한 투쟁에 참가 및 투쟁원조와 지도 등을 결정하였다.

1932년 6월 1일 충남전위동맹은 제3회 집회에서 ‘대전전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던 전북지역의

27)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 : 1986-1996』 상, 1996, p.282.

28) 통계청, 『통계로 다시 보는 해방 이전의 경제사회상』, 1995 :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 : 1986-1996』 상, pp.504-505.

29)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p.441.

30) 동일 판권문인데도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정식 명칭인지 알 수 없다.

사회운동조직과 합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전북지역에도 일본인 독점재벌의 제사공장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전지역과 유사한 사회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대전전위동맹은 전북지역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에 의해 저항운동을 위한 조직방침과 투쟁전략을 배우게 되었다.³¹⁾ 대전전위동맹은 대전중학교 조선인 학생들의 모임인 '선우회'를 중심으로 학생반, 산내면 무수리에 농민반, 노동반, 신문반 등 4개 반을 구성하였다.³²⁾ 그러나 1932년 6월 15일 전북지역 공산운동자 검거를 피해 대전으로 온 한종식으로부터 공산운동은 무산 노동·농민층의 획득 지도에 힘쓰고 운동조직은 아래로부터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유에 정창제의 제창으로 대전전위동맹은 해산하였고, 적화소년동맹도 같은 이유로 6월 19일 해산하였다. 그리고 직업별로 조직 결성을 기도하여, 1932년 6월 대전군 외남면에서 정창제의 권유로 대전중학생 권응두·서재운·오명근이 공산운동 연구, 공산운동의 최선봉에 서기, 무산노동자 및 농민 지도를 목적으로 대전중학생반을 조직하였다. 책임자 권응두, 교양부 오명근, 재정부 서재운으로 부서를 정하고 반원은 매월 2일 회합, 회합에서는 공산주의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비판을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활동 4개월만인 1932년 10월 해산하였다. 또한 1932년 6월 정창제의 권유로 대전군 산내면에서는 농민들로 공산사회 건설에 필요한 이론과 전술을 연구할 무수리농민 독서회(농민반)를 조직하고자 조직책임자 권응성, 교양부 권응두, 회계부 권응기로 부서를 정하고 매월 토요일에 회합, 월회비 5전, 『노동과 자본』과 같은 공산주의서적 회람 등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남면에서는 자유노동자들로 공산사회 건설에 필요한 이론과 전술을 연구할 독서회를 조직하고자 유교천을 책임자로 하고 매월 15일과 30일에 회합, 월회비 10전, 동지 획득에 노력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외남면에서는 신문배달부들로 독서회(신문배달반)를 조직하고자 책임자 이삼봉, 재정부 김지성, 서무부 설익만으로 부서를 정하고 매월 2회 회합, 월회비 10전, 마르크스주의연구에 노력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신문배달반은 1932년 8월경 해산되었고, 8월 중순 대전읍에서 신문배달반을 조직하고 책임자 박병기, 재정부원 김지성, 교양부원 설익만으로 부서를 정하고 매주 수요일 회합, 월회비 30전, 공산주의 연구에 노력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

1932년 11월 대전전위동맹은 군시제사대전공장의 노동운동에 관여하였다. 군시제사대전공장은 1925년 5월 설치된³³⁾ 대전군내 최대의 공장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가혹한 노동통제,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여론의 비판대상이었다.³⁴⁾ 1932년 11월 7일 아침 작업시작 기적과 함께 남자직공들이 간부직원을 구타하면서 노동쟁의는 시작되었고, 여기에 600여 명의 여자직공들이 가담함으로써 동맹파업으로 발전하였다.³⁵⁾ 동맹파업을 주도한 공장 직공 송태빈·이병철·송희영·서상복·한양이·황동길 등은 모두 대전제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이 공장에 취직한 동문들이었다.

대전전위동맹의 학생반은 동맹파업 지지 전단을 작성·인쇄·살포하여 파업노동자들을 격려했다.³⁶⁾ 11월 8일 이삼봉·원종응·박병기·김지성 등이 작성·인쇄하여 9일 공장에 150여 매를 살포한 전단에는 '동지들의 경찰서 습격은 실로 용감하다', '제사공장 파업동지들, 동지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고함(高喊)을 높여 싸우자, 싸움 뒤에는 승리가 온다'와 같은 격려와 선동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또한 11월 11일 180매를 살포한 전단에는 '동지여, 우리들의 배후에는 수억의 큰 힘이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여 국제적인 공산주의 조직 내지 힘을 과시하였다. 격렬한 항쟁과 파업에 일본인 기업가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 그래서 이 노동쟁의를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노동쟁의 중 처음으로 경제적 구호가 아닌 '조선인 차별과 해고반대'라는 민족적인 구호를 내세웠고 일본인 기업가가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³⁷⁾ 그러나 파업이 해결된 후 일제는 파업의 배후에 '충남전위대'³⁸⁾라는 비합법 적색노조가 있다며 15명을 검거, 전주로 압송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취조하던 전북경찰부는 충남전위대가 조선공산당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충청도는 물론 전북과 전남에서도 검거를 시작하였다.

4. 전북·충남의 조공제건 활동

31) 金亨國, 「1920년대말~1930년대초 南谷 權容斗의 抗日運動」, p.133.

32) 金亨國, 「1920년대말~1930년대초 南谷 權容斗의 抗日運動」, p.134.

33) 安齊霞堂, 『忠清南道發展史』, 大田: 湖南日報社, 1932, p.45.

34) 이에 대해서는 김형국, 「1930년대 군시제사대전공장 노동상태와 노동쟁의」 참조.

35) 『중앙일보』 1932.11.9.

36) 『동아일보』 1932.11.17.

37) 김형국, 「1930년대 군시제사대전공장 노동상태와 노동쟁의」, p.216.

38)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판결문과 신문에는 계속하여 '충남전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34년 3월 31일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언도된 42명의 본적 및 주소, 학력 및 주요 경력, 나이, 직업은 다음과 같다.³⁹⁾

이름	나이	주소	학력 및 경력	적용법/형량	직업
姜昌祐	21	(본적)경남 창원군 창원면 중동리 (주거)충남 대전군 대전읍 본정 3-252	· 대전제1공립보통학교 졸업 · 1932. 11. 7 대전군시제시공장에 전단 약 200매를 작성, 교부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1년	무직
姜喜錫	22	(본적)전북 부안군 부령면 동중리 375 (주소)전북 부안군 부령면 동중리	· 이리공립농업학교 4학년 중퇴 · 1931. 9월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협의 · 1931.10.12-13 가두청년 획득운동 협의 · 1932.5.9 부안노동조합의 부흥 기획, 결사 조직	치안유지법 징역 1년	농업
權容斗	21	(본적)충남 대전군 대전읍 대흥정 473-2 (주거)상동	· 대전공립보통학교 졸업→대전중학교 입학, 5학년 때 본건으로 검거, 중퇴 · 1932.5.21 적색소년동맹 조직 교양부원 · 1932.6월 대전중학생반 조직, 동년 10월 해산 · 1932. 6월 농민반 조직 교양부원 · 1932.11.8 군시제시대전공장에 파업에 협력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1년	무직
金圭鮮	24	(본적)전북 전주군 이서면 반교리 번지 不詳 (주소)전북 전주군 전주읍 대정정 2정목 23번지	· 전주공립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1930.5.23 동맹휴교의 주모자로 퇴학 · 1931.2.3 대구복심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 · 1931.2월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3년생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 1931. 4월 하순 전교지도부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지도책임자	치안유지법 징역 2년 6월	무직
金貴仲	28	(본적)전북 옥구군 미면 오식도리 (주소)상동	· 향리에서 한문 3년간 수업 · 1926년경부터 군산의 義塾에 고용 · 1929. 5월경 군산철도노동회 하차부 회원 · 1927. 5. 2일 군산법원지청에서 상해죄로 벌금 20원 · 1929. 11. 26 군산법원지청에서 소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종료 · 1932. 1월 하순 군산에서 義塾 조직 노력	치안유지법 징역 1년	노동
金文玉	31	(본적)전북 전주군 전주읍 고사정 326 (주소)상동	· 전주공립 제2보통학교 3학년 중퇴 · 1926.6월 전주 태극기사건으로 검거 · 1928.4월 전주청년동맹에서 출석대표로 선발 · 1928.7월 조선노동총동맹 전주연맹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 · 1930.1.5 전주합동노동조합 조직, 조합원 겸 상무서기, 전주청년동맹 서무 및 재정부장 · 1931. 5월 조선공산당재건전주지구위원회에 참여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2년	전주합동노동조합서기
金所倫	22	(본적)전북 김제군 백구면 도강리 121 (주소)상동	·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3년 중퇴→경성사립중등학교 3학년 편입, 5학년 중퇴 · 1931.2.3 대구복심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 1931. 7월 이리공립농림학교에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협의	치안유지법 징역 1년 6월	무직
金玉男	25	(본적)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250 (주소)상동	· 부안 송림보통학교 4학년 과정 수료	치안유지법 징역 1년 6월	농업

39) <김철주 등 판결문>(昭和8年 刑公 第1905-1910호, 전주지방법원, 1934.3.31)

金知威	20	(본적)충남 대전군 대전읍 동정 1-310 (주거)상동	· 1929년 대전공립제일보통학교 6학년 중퇴 · 1932.5.21 대전 적색소년동맹 조직 재정부원 · 1932. 6월 신문배달반 조직 재정부원 · 1932. 8월 중순 신문배달반 조직 재정부원 · 1932.11월 군사제사대전공장 파업에 전단 인쇄실패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1년 6 월	신문배 달부
金鐵柱	27	(본적)전북 전주군 이동면 철암리 번지 가림 (주소)전북 전주군 전주읍 청수정 126번지	· 전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4학년 중퇴 · 1928. 4월 전주청년동맹 제 1차 정기총회에 참석 도연맹 출석대표위원 선출 · 1928. 8월경 전주경찰서에 검거되어 3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1930년 말 예심 면소로 출옥 · 1931. 7월 전주에서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중부위원회 결성에 참가, 그후 전 북청년동맹원, 전주합동노동조합 간부, 굴전(掘田)인쇄소 노동자 전주전매지국 노동자를 중심으로 비밀결사 조직	치안유지법 경치여 관한 법 죄 처 벌 의 권 보안법 출판법 징역 4년	무직
朴丙得	29	(본적)전북 부안군 상서면 용사리 556 (주소)상동	· 1922, 1923년경 부안 사립학교에서 약 1년간 공부 · 1926년경 부안청년동맹 가입	치안유지법 징역 1년	농업
朴福根	22	(본적)전북 전주군 전주읍 대화정 207 (주소)전북 전주군 전주읍 팔달정 17	· 1933.봄 전주공립보통학교 졸업 · 1931.2월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 1931.4월말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3반 조직 · 1932.5.20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에 참여	치안유지법 징역 1년 6월	무직
朴禮棟	24	(본적)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천리 593 (주소)상동	· 1928. 3월 부안공립보통학교 졸업	치안유지법 징역 1년	농업
白南哲	26	(본적)전북 부안군 부령면 서외리 607 (주소)상동	· 부안공립보통학교 졸업→경성중등학교 1학년 중퇴→1928. 9월 일본대학 법 과전문부 수학 · 1931.4.21 부안노동조합 조직 협의	치안유지법 징역 1년	농업
徐相福	21	(본적)충남 대전군 대전읍 춘일정 2정목 (주거)상동	· 대전공립제일보통학교 졸업 · 1931.4.1 대전군시제사공장 취직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건 상해 징역 8월	무직
徐載閔	20	(본적)충남 대전군 대전읍 영정 2-349 (주거)상동	· 1930. 3월 충북 영동 심상소학교 졸업 동년 4월 대전중학교 입학 3학년 때 검거 중퇴 · 1932. 6월 대전중학생반 조직, 학생반은 동년 10월 해산 · 1932.11. 8 군사제사공장 직공들에게 전단 인쇄실패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1년	무직
薛億萬	23	(본적)충남 대전군 대전읍 대동정99 (주거)상동	·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5학년 중퇴 · 1932.4. 신문배달부 · 1932.10.대전고무상회 취직 · 1932. 6월 신문배달반 조직 · 1932. 8월중순 신문배달반 조직 · 1932.11. 9 군사제사공장에 전단 실패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1년	신문배 달부
宋兌彬	20	(본적)충남 대전군 대전읍 대동정 138 (주거)상동	·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동교 고교 고등과에서 1년 공부 · 1930.12.1 대전군시제사공장 취직 · 1932.11.7 동맹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의 조선인 폭행	치안유지법 상해 징역 8월	무직
宋禮永	21	(본적)충남 대전군 회덕면 오정리 599 (주거)상동	·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 1931.3.27 대전군시제사공장 취직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건 상해 징역 8월	무직
辛南根	19	(본적)전북 부안군 부령면 동중리 97 (주소)전북 부안군 동진면 서봉황리	· 1929. 3월 부안공립보통학교 졸업→ 약 20일간 부안군 부령면사무소에서 면 서기 견습	치안유지법 징역 1년	무직

申彦眞	29	(본적)전북 옥구군 회현면 고사리 463 (주소)전북 옥구군 성산면 내흥리	·항리서당에서 8년간 한문 공부→경성 동대문밖 교학당에서 약 3개월간 공부 ·1925. 8월 옥구군 대이면 대이청년회 조직 서무부 간사 ·1925. 11월 옥구군청년동맹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1929. 5월경 군산청년동맹 상무서기 ·1930. 6월 군산철도노동회 중심, 비밀결사 조직함의, 전라북도경찰부에 검거	치안유지법 징역 1년6월	무직
梁基周	22	(본적)전북 익산군 팔봉면 덕가리 150 (주소)상동	·익산군 이리공립농림학교 3학년 때 병으로 중퇴 ·1931. 4월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협의 ·1931. 10월 러시아혁명기념회 개최 협의 ·1931. 8월 윤태현이라 變名한 한종식을 은익	치안유지법 법인 黨露 징역 1년4월	농업
梁集聖	22	(본적)전북 전주군 전주읍 본정 1-51 (주소)전북 전주군 전주읍 대화정 333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3년 중퇴 ·1931년 여름 전주청년동맹 가입 ·1931. 11월 공산주의비밀결사 조직 ·1932.1월중순 가두청년에게 공산주의서적 배포열독 권설	치안유지법 정치여관한 법 죄처벌의 건 징역 1년4월	점원
梁漢根	22	(본적)전북 전주군 전주읍 풍남정 13 (주소)상동	·전주공립제일보통학교 5년 중퇴 ·1931. 8월 전주청년동맹 가입 ·1932. 1-2월 공산주의 서적 배포, 공산주의사상 선전	정치여관 한 법죄처벌의 건 징역 1년4월	두부틀
元鍾應	26	(본적)충북 충주군 신미면 화석리 번지 不詳 (주소)충남 대천군 대천읍 본정 2정목 번지 不詳	·충주 용원공립보통학교 졸업→교학당에서 2년 공부 중퇴 ·1932.5월부터 충남 대전에서 해신물상 경영 ·1932.5.1 충남전위동맹 조직 ·1932.3.21 적색소년동맹 조직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1년8월	해신물 상
尹基煥	20	(본적)전북 전주군 전주읍 완산정 491 (주소)전북 전주군 전주읍 완산정 367	·1931. 12월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3년 중퇴 ·1931. 2월 2년생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1. 4월 하순 3년생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1. 10월 전주청년동맹 가입	치안유지법 징역 1년4월	무직
尹希重	36	(본적)전남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주소)전북 전주군 전주읍 서정 140	·항리에서 4-5년 한문 수학→전남 나주공립보통학교 편입 3개월 통학 ·1933. 1월 교통노동준비회 조직 ·1933.2.14 3·1투쟁준비회에 교통노동대표 선출	치안유지법 보안법 징역 1년6월	자동차 운전수
李謙重	23	(본적)전북 익산군 금마면 소고도리 273 (주소)상동	·1933년 봄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 중퇴 ·1931. 4월하순 전교지도부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2.5.20 전교지도부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2.6월 제8학년 지도부의 하부조직인 제8학년 A반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2.7월 적색구원회 조직	치안유지법 징역 1년6월	무직
李炳哲	20	(본적)충남 대천군 유천면 당대리 26 (주소)상동	·대전제2공립보통학교 졸업 ·1930.6.24 대전군시제사공장 취직	치안유지법 징역 8월	무직
李三奉	21	(본적)충남 대천군 대천읍 동정 1-249 (주소)동정 2-305	·1929. 3월 대전공립제일보통학교 졸업 ·1932.1.20-10.30 신문배달부 ·1932. 5. 21 적색소년동맹 조직 ·1932. 6월 신문배달반 조직	치안유지법 출판법 징역 1년4월	농업
李愚誠	30	(본적)전북 전주군 심례면 구와리 65	·심례공립보통학교 졸업→전주도립사범학교 제2학년 과정 수료→장수 임파의 각 공립보통학교 교사 거처에서 농우회(農友會) 조직 ·1933.2.15 3·1투쟁준비회 개최	보안법 징역 1년6월	농업
林長壽	23	(본적)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736 (주소)상동		치안유지법 징역 1년	농업

張在燮	26	(본적)전북 전주군 이동면 검암리 173 (주소)상동	·전주시립신흥학교 고등과 제8학년 중퇴 ·전주청년동맹 가입, 신간회 전주지회 위원 ·1931. 5월 조선공산당대전 전주지구위원회에 참가 일본경찰에 검거 ·1931.7.20 전주연초전매자국 독서회 조직	청치여 관한 법 조 처 별 의 건 보안법 장역 1년6월	농업
鄭昌世	27	(본적)경남 진주군 진주읍 중성동 97 (주거)함남 함흥부 중앙정 2 정목 53번지	·진주공립보통학교 4학년 중퇴-1924. 8월경 동경正則 영어학교-1925. 4월 일 본대학 전문부 정치과 1927. 8월경 2년생 때 중퇴 ·전주청년동맹 집행위원 진주신간회지회 집행위원 진주청년동맹 집행위원장 ·1931.2월경 간도 대성중학에서 교사, 동년 9월경 사직 ·1931. 1월 하순 충남 대전 果物商 경영, 구두제조업 종사 ·1931. 5. 1 충남전위동맹 조직	치안유지법 장역 2년6월	果物商
鄭海哲	28	(본적)전북 금산군 금산면 중도리 번지 不詳 (주소)상동	·1922. 3월 금산공립보통학교 졸업-전주공립농업학교 입학-1927. 3월 졸업 ·1928. 2월 금산군청년동맹 가입, 연락조직원 ·1929. 3. 29 전북공산당사건에 연좌, 경기도경찰부에 검거 ·1931. 8. 31 설교방해죄, 10. 12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유예처분 ·1931. 6. 30 금산청년동맹회관에서 서면대회	치안유지법 장역 2년	농업
趙 筠	22	(본적)전북 김제군 김제읍 옥산리 344 (주소)전북 전주군 전주읍 대화정 197	·1929년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입학, 1931년 4월 퇴학, 그해 6월 전주시립신 흥학교 고등과 2년 입학, 3년 과정 수료 후 중퇴 ·1930. 9월 중순 이후 독서회 조직	치안유지법 장역 1년4월	무직
崔大得	26	(본적)전북 남원군 운봉면 산덕리 90 (주소)상동	·1927. 3월 남원 운봉공립보통학교 졸업-1928. 4월 전주공립농업학교 입학 ·1928.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죄로 장역 6 월에 2년간 집행유예 ·1930. 6월경 익산에서 농민운동 협의	치안유지법 장역 10월	농업
崔月上	23	(본적)전북 전주군 전주읍 원산정 308 (주소)상동	·1932.5.27 전주공립보통학교 3년 중퇴 ·1930.2월초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1. 4월 하순 全北지도부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1.5.20 전교지도부인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1931.7월 전주청년동맹에 가입	치안유지법 장역 1년6월	무직
崔在必	22	(본적)전북 익산군 횡동면 용산리 1042 (주소)상동	·아리공립농림학교 4년 중퇴 ·1931. 11월 독서회를 기초로 공산주의연구 독서회 조직	치안유지법 장역 1년	무직
韓良履	18	(본적)충남 대전군 유천면 평리8 (주거)상동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1931.9.3 대전군시제사공장 취직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건 상해 장역 8월	직공
韓宗植 (이판옥, 한혁)	26	(본적)경기 강화군 하도면 문산리 (주소)전북 군산부 영정 180	·강화공립보통학교 4년 이수 ·1927.2. 군산부 內 松島정미소 糶米工/米糶會 회원 ·1928.11. 미친회원 선동, 동맹과업→경찰범처벌규칙 위반죄 ·1929년 봄, 군산僑友조합원→동 조합의 상무서기 ·1930년봄 ML과 당재건조직의 하나인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결성에 참여. ·1931. 7월경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중부위원회 만들고 책임자 ·1932. 5월경 부안노동조합 부흥운동에 주력하다 발각	치안유지법 장역 3년6월	무직
黃同吉	23	(본적)충남 대전군 외남면 신소리 608 (주거)상동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대전상업보습학교 2년과정 수료 ·1931.8.20 대전군시제사공장 취직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건 상해 장역 8월	직공

이들에 대한 전주지법의 선고는, 한종식은 결사가입·협의·선동·반전뉴스 저술반포, 김철주는 협의·선동·반전뉴스 저술인쇄
반포, 김규선은 결사조직·교사·협의·선동·반전뉴스 반포, 최필상은 결사조직·협의·선동, 박복근은 결사조직·교사, 이경종과

조균은 결사조직, 윤기환은 결사조직·선동, 김문옥은 협의·선동·〈꿈유니스트〉 및 〈봉화〉의 반포와 선동, 이우성과 양한근은 협의·선동, 양문성은 결사조직·협의·선동, 김병륜·최육득은 협의, 양기주는 협의·범인은익, 장재섭·윤희중·최재필·강희석·신남근·임장수·백남철·박병득·박예동은 결사조직·협의, 김옥남은 결사조직, 정창제는 결사조직·교사·협의, 원종응은 결사조직·협의·선동뿐 아니라 저술인쇄 및 반포, 김지성은 결사조직·선동·선동뿐 아니라 저술인쇄 및 반포, 권응두와 서재운은 결사조직·선동·원종응의 선동뿐 아니라 인쇄살포 방조, 이상봉은 결사조직·선동뿐 아니라 저술인쇄반포, 설익만은 결사조직·선동뿐 아니라 반포, 송태빈·이병철·송희영·서상복·한양이·황동길은 공동 폭력행위·상해, 김귀중·신언진은 협의, 강창우는 결사조직·협의, 정해철은 협의·선동·설교방해의 죄목으로 치안유지법·출판법·보안법·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에서 징역 8월이 구형되었다.

김철주·양한근·양한성·장재섭 등 4명에게 적용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은 1919년 4월 15일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일종의 조선의 치안유지법이라 할 수 있다.⁴⁰⁾ 서상복·송희영·한양이·황동길 등 4명에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은 1926년 4월 10일 법률 제60호로 공포, 동년 9월 칙령 제299호로 동 15일부터 조선에 시행되었는데 단순폭행, 협박, 손괴 등 범죄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해진 경우를 처벌하는 특별법이었다.⁴¹⁾ 강창우·권응두·김문옥·김지성·김철주·서재운·설익만·원종응·이상봉 등 9명에게 출판법(1909년 공포), 김철주·윤희중·이우성·장재섭 등 4명에게 보안법(1907년 공포), 서상복·송태빈·한양이·황동길 등 4명에게 상해, 양기주에게 범인 은닉의 죄가 적용되었다. 출판물에 많은 이들이 관련된 것은 출판물의 내용을 통해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당시 공산주의운동의 일반적인 방법인 때문이었다. 반권뉴스·가두청년·꿈유니스트·봉화 등을 인쇄 반포하였는데, ‘좌익의 긴급한 임무의 하나는 노동자의 생활을 그려내고, 요구를 표식화하며, 그리고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지도하기 위한 노동조합신문 발간과 아울러 팜플렛·공장신문·통속적인 소책자·빠라 등을 발행하는 일이다’⁴²⁾라고 한 프롤레타르의 지시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두세 개의 죄목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이 된 42명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1925년 4월 21일 법률 제46호로 공포, 동년 5월 8일자 칙령 제175호에 의거하여 식민지 조선에 시행된 치안유지법으로 35명에게 적용되었다. 1926-1933년 33,012명의 사상범죄자 가운데 치안유지법 위반자가 10,251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약 1/3이나 되었는데⁴³⁾ 이들 대부분이 공산주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를 적용받은 35명도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국체를 변혁한다는 것은 통치권자의 총람자(總攬者)인 일왕의 절대성에 변경의 책재를 가하려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은 질의 문제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전면적 공산혁명만은 물론 사유재산제도를 위태롭게 할 모든 부정적 행위도 포함하였다. 즉 ‘결사단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의 계속적 결합이며, 따라서 다중범이라고 규정되었고, ‘조직’은 규약·기타 결사의 성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이르게 함이며, 구체적인 활동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가입’이란 임의로 결사의 구성원이 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제2조는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써 ‘그 목적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이며 ‘협의’란 2인 이상이 범법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3조는 ‘그 목적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경우이며, ‘선동’은 문서, 도화, 언동, 기타의 방법으로 범죄를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조장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⁴⁴⁾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인 2,592명을 대상으로 ‘조선공산주의운동자는 대체 어떠한 동기에서 공산주의운동에 노력하게 되었는가’를 조사한 일제자료를 보면,⁴⁵⁾ 그 첫 번째가 좌익계열문헌의 독서, 두 번째가 친구 등 아는 사람의 권유, 세 번째가 민족적 편견과 생활고 때문이었다.⁴⁶⁾ 이 사건의 42명이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판결문에 의하면, 아는 사람의 권유와 공산주의서적을 읽고서였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무직이 19명으로 45.2%, 농업이 12명으로 28.6%, 노동자 5명(직공 2명, 노

40)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平和出版社, 1985, p.126.

41)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p.127.

42) 한대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p.256.

43)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pp.62-63.

44)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pp.121-124.

45) 「治安維持法違反者に對する職業, 年齢, 教育, 生活程度等調」, 『思想彙報』 제5호, 1935.12, p.9.

46) 권상숙,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4, p.237.

등 1명, 점원 1명, 운전수 1명)으로 11.9%, 상업 3명(두부집·해산물상·과일상 각 1명)으로 7.1%, 신문배달부 2명, 노동조합서기 1명이었다. 『사상회보』를 보면 치안유지법 위반자는 전체대상자 13,288명 중 농업이 38.8%, 무직 22.7%, 노동자 11.1%, 학생 8.8%, 사무원 5.9%, 상업 4.8%, 교원 2.2%, 종교인 1.5%, 기자 1.0%, 어업 0.9%, 기타 2.2%순이었다.⁴⁷⁾ 그런데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에서는 무직이 거의 절반이나 된다. 1920년대 말부터 농업공황과 일제의 기형적 식민지 공업화정책의 영향으로, 실업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실업문제는 1930년 조선총독부가 제1회 실업자조사를 하기에 이를 정도였다.⁴⁸⁾ 45.2%의 무직은 1930년대 악화된 경제수탈구조, 그로 인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실업, 특히 공업화정책이 추진되었던 1930년대 농도였던 전북과 충남에서 실업이 한층 심하였음을 말해준다. 즉 이 사건에 관련된 이들의 공산주의운동 참여 동기에는 생활고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 실업을 물고 온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그를 타개하기 위한 희망과 노력이 공산주의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나이를 보면 20대가 37명으로 88.1%이고, 30대가 3명, 10대가 2명이다. 36세가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이고, 25세 미만 이 28명으로 66.7%나 되어 연령대가 25세 아래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이들이 대부분 재학 중 공산주의운동에 관여하여 퇴학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학력을 보면 충남에서는 대전공립제1보통학교 졸업 7명·중퇴 2명, 대전공립제2보통학교 졸업 1명, 대전중학교 중퇴 2명이다. 전북에서는 전주공립보통학교 졸업 1명·중퇴 3명, 전주공립제2보통학교 중퇴 1명,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중퇴 4명, 전주공립농업학교 졸업 1명·중퇴 1명, 전주사립신흥학교 중퇴 2명, 전주소립사범학교 수료 1명, 이리공립농업학교 중퇴 3명, 부안 공립보통학교 졸업 2명, 부안 송림보통학교 수료 1명, 부안 사립학교 수학 1명이다. 그리고 타지역 학교로는 충주공립보통학교 졸업 1명, 강화공립보통학교 이수 1명이 있고 전북 출신으로 경성사립중등학교(←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중퇴) 중퇴 1명, 일본대학 법과전문부(←경성중등학교←부안공립보통학교) 수학 1명과 일본대학 전문부 정치과 수학 1명이 있으며,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한 이도 3명이다. 모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고, 보통학교 졸업 이상이 24명으로 57.1%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문맹률이 80% 이상이고, 1931년 현재 서당 및 보통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전체 한국인의 3.1%였다⁴⁹⁾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충분히 지식인 범주에 포함된다.

42명 중 집행유예 29명, 체형 13명이 구형되자 체형구형자 13명 중 김귀중·김규선·김병문·김문옥·김철주·신언건·원종응·정창세·정해철 등 9명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⁵⁰⁾ 그러나 9명에 대하여 1934년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는 김철주를 징역 4년에서 3년 6월로, 정해철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하는 것 외에 나머지 7명에게는 전주지법의 판결과 같은 형을 언도하였다.⁵¹⁾

5. 맺음말

1933년 12월 4일 전주지법 공판에 회부된 일명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은 1930년대 초반 지역별로 전개된 공산주의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4차의 조공재건운동이 실패하고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농민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19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은 일제의 식민지공업화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운동에 무게중심이 두어졌다. 농도였지만 전북에서도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대전은 지리적인 여건과 산업여건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전북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주공립보통학교와 전주사립신흥학교, 이리공립농림학교 등에 독서회가 조직되었고, 이들 독서회를 통하여 공산주의운동이 확산되었다. 전북지역 학교의 독서회 활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주의운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운동으로 진전되었다.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퇴학당한 학생들은 전주청년동맹에 가입하였고, 가두청년

47) 「治安維持法違反者に對する職業、年齢、教育、生活程度等調」, 『思想彙報』 제5호, 1935.12 : 지수길, 『일제하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pp.74-78.

48)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の治安狀況』, 1934, p.29.

49)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研究』 2, 京城:世光社, 1932, p.117.

50) 『동아일보』 1934.4.6 : 『조선중앙일보』 1934.4.6.

51) <김철주 등 판결문> (昭和9년 刑公 제161-164호, 대구복심법원, 1934.11.29)

혁명과 공산주의사상 주입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노동운동은 철도나 도로공사에 종사하던 토목노동자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정미공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산업별로 공산주의운동 조직이 결성되어 자동차운전수들은 교통노동준비회, 부안노동조합, 전주연초전매국 독서회 등이 조직되었다. 농도였음에도 농민조합 조직에 대해서는 욕구가 유일하게 언급되었다. 관련자가 무직자가 많았고, 1930년대의 상황이 식민지공업화정책으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개별 학생조직과 노동 및 농민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재건을 준비하기 위한 중앙조직도 결성되었다. 1930년 봄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가 결성되었고, 1931년 5월 조공재건전주지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31년 7월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총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1931년 11월 전북지방위원회 조직을 계획하였는데 김창수와 김철주의 검거로 침체에 빠지자 한종식이 전북의 공산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검거를 피하여 대전으로 갔다가 충남전위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공산운동과 충남지역의 공산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군시제사대전공장 동맹파업사건으로 충남전위동맹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충남전위동맹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전북지역의 공산주의운동 관련 단체 및 관련자도 검거되어 공산주의운동은 중단되었다.

충남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은 1932년 5월 결성된 충남전위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충남전위동맹의 최초 산하단체로 적화(적색)소년동맹이 조직되었는데 동맹원은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전후배 사이였다. 이후 충남전위동맹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던 전북지역의 사회운동조직과 합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일본인 독점재벌의 제사공장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전지역과 유사한 사회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남전위동맹은 전북지역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에 의해 저항운동을 위한 조직방침과 투쟁전략을 배우게 되었다. 이후 충남전위동맹은 군시제사대전공장의 노동운동에 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제의 검거대상이 되어 회원들이 체포되고, 전주지역의 공산주의운동 조직도 검거되었다.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42명에게 치안유지법 등을 적용하여 판결을 언도하였다. 그중 13명이 체형을 받았고, 그중 9명이 항소하였는데 대구복심법원은 9명의 형량을 1심과 거의 유사하게 언도하였다. 42명의 직업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무직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이는 25세 이하가 상당히 많다. 모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고,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많았다. 이는 무산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1930년대의 공산주의운동을 추진하려 하였던 코민테른의 방침이 식민지 조선 전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또한 193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실상은 지역별·사례별 연구가 축적된 이후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과 충남전위동맹과 관련된 대전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은 노동자·농민이 주도한 운동이었다기보다는 학생층 내지 지식인층이 주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 2007. 5. 1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독서회, 전주공립보통학교, 전주사립신흥학교, 이리공립농림학교,
전주청년동맹,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충남전위동맹,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
군시제사대전공장, 동맹파업, 치안유지법

■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思想月報』, 『思想彙報』,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 강만길·성대경 역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V, 고대출판부, 1973.
- 김형국, 「1930년대 군시제사대전공장 노동상태와 노동쟁의」, 『충산정덕기박사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6.
- 김형국, 「1920년대말~1930년대초 남극 권용두의 항일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1999.
- 류시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역사비평』 2006년 봄호, 2006.2
- 신주백,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천인, 2004.
- 安齊露堂, 『忠清南道發展史』, 大田 : 湖南日報社, 1932.
- 오대륙, 「1920년대 ‘全北民衆運動者同盟’ 研究」,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발표문, 2007년 3월 10일.
-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研究』 2, 京城 : 世光社, 1932.
-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平和出版社, 1985.
-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전라북도지』 제2권, 1989.
- 전상숙,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1934.
-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9, 1933, 1935년판), 東亞經濟時報社.
- 지수길, 『일제하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 : 1886-1996』 상, 1996.
- 통계청, 『통계로 다시 보는 해방 이전의 경제사회상』, 1995.
- 한대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1933년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

문선자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은 1930년대 초반 지역별로 전개된 공산주의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농도였지만 전북에서도 노동운동은 중심으로 공산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대전은 지리적인 여건과 산업여건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전북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학생들의 독서회 활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주의운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운동으로 진전되어 산업별로 공산주의운동 조직이 결성되었다. 농도였음에도 농민조합 조직에 대해서는 욕구가 유일하게 언급되었다. 상대적으로 관련자가 무직자가 많았고, 1930년대의 상황이 식민지공업화정책으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때문이었다.

조선공산당재건을 준비하기 위한 중앙조직도 결성되었다. 1930년 봄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가 결성되었고, 1931년 5월 ‘조공재건 전주시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31년 7월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중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1931년 11월 전북지방위원회 조직을 계획하였는데 김창수와 김현주의 검거로 침체에 빠지자 한종식이 전북의 공산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검거를 피하여 대전으로 갔다가 충남전위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공산운동과 충남지역의 공산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군시제사대전공장 동맹파업사건으로 충남전위동맹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충남전위동맹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계속되지 못하였다.

충남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은 1932년 5월 결성된 충남전위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충남전위동맹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던 전북지역의 사회운동조직과 연대를 구축하였다. 일본인 독점재벌의 제사공장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전지역과 유사한 사회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충남전위동맹은 군시제사대전공장의 노동운동에 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제의 검거대상이 되어 회원들이 체포되고, 전주시역의 공산주의운동 조직도 검거되었다.

일명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 사건은 전주시범에서 42명에게 치안유지법 등을 적용하여 판결을 언도하였다. 직업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무직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이는 25세 이하가 상당히 많다. 교육정도를 보면 모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고,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많았다. 이는 무산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1930년대의 공산주의운동을 추진하려 하였던 코민테른의 방침이 식민지 조선 전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전북과 충남전위동맹과 관련된 대전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은 학생층 내지 지식인층이 주도한 것이었고, 지역적 연대가 이루어졌던 공산주의운동 사례이다.

■ Abstract

Case of "Reconstruction of Chosun Communist Party in Jeonbuk province and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Seon-Ja Yoon

The case of "Reconstruction of Chosun Communist Party in Jeonbuk province and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showed us well how a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was developed by the area. Though the main industry in Jeonbuk province was agriculture,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was actively developed in this area centering on a labour movement and the labour movement in Daejeon was actively spread on the basis of the industrial and geographical circumstance.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was developed centering on the students and the activities of the students in a reading club was not limited to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targeting the students and developed into a social movement, and organization for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by industry was formed. Although Jeonbuk province was an agricultural area, a farmers' partnership was mentioned only in Okgu this was because many of related persons are ones without a regular job relatively and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made the relative importance of agriculture lowered in 1930s.

Central organization was formed in order to prepare the reconstruction of Chosun Communist Party. Jeonbuk province communist council in was formed in Spring, 1930 and Jeonju regional committee for reconstruction of Chosun Communist Party was organized in May, 1931 and central committee of Jeonbuk province communist council was formed. Subsequently the formation of Jeonbuk province regional committee was planned in November, 1931, however, the plan was not easily accomplished because Chang-Soo Kim and Cheol-Joo Kim were arrested. Accordingly Jong-Sik Han focused his efforts on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in Jeonbuk province, however, he also escaped to Daejeon to avoid being arrested and took part in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and prepared an opportunity for solidarity between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in Jeonbuk and Choongnam provinces. But shortly The whole aspect of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was detected because of the case of a labor strike at Goonsi filature factory in daejeon.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in Choongnam province was developed centering on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which was formed in May, 1932.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built solidarity with an organization for social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geographically located nearby because filature factories of the Japanese tycoons gathered together and social problems like those in Daejeon were exposed. Since then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took part in the labour movement at Goonsi filature factory in Daejeon. The members became the target

of arrest and were arrested because of this and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in Jeonju were arrested

At the case of "Reconstruction of Chosun Communist Party in Jeonbuk province and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Jeonju district court applied 42 arrested persons to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and passed sentence upon them.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 many of them were persons without a regular job unlike general case and many of them were under 25 years of age. According to their levels of education all of them were literate and many of them had an academic background over the graduation from an elementary school. This shows that the policy of the Comintern which had tried to propel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was not properly operated all over the colony Korea.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in Daejeon related to Vanguard Union in Jeonbuk and Choongnam province was led by the class of the student class or the intellectuals and was the case of the communistic drive for the spread of communism in which the regional solidarity was realized

Key wards: A reading club, Jeonju public elementary school, Jeonju Shinheung private school, Iri public agricultural and forestry school, Jeonju Young People Union, Jeonbuk province communist council, Vanguard Union in Choongnam province, Daejeon First Public Elementary School, Goonsi filature factory in Daejeon, Labor strike,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